

첫날 오리엔테이션 · 한눈에

실습생·자원봉사자는 담당교사의 안내 아래 움직입니다. 기관별 규정과 이 시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담당교사와 함께 작성

기관명 _____ 이름 _____

활동 기간 _____ 담당교사 _____

1 나의 역할 경계

항상 합니다

- 담당교사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 활동하기
- 모르면 멈추고 먼저 묻기
- 아이 수·동선·출입문을 함께 확인하기
- 본 사실을 바로 보고하기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 투약·급식 변경·응급처치 판단
- 화장실·기저귀·수면 지원
- 보호자 상담·하원 인계
- 촬영·게시·개인정보 전달

2 첫날 동선 확인

- ☐ 비상구·대피 집결지·소화기·구급함·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확인했다.
- ☐ 출입문·계단·놀이터·화장실에서 특히 지켜야 할 위치를 확인했다.
- ☐ 아이 수 확인 시점과 이동 전·후 인원 확인 방법을 들었다.
- ☐ 비상연락망, 사고 보고 대상, 책임자 연락 방법을 확인했다.
- ☐ 알레르기·건강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고 별도로 복사하지 않는다.
- ☐ 개인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둘 곳, 촬영 금지 원칙을 확인했다.

기억할 한 문장

아이와 단둘이 남지 않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멈춘 뒤 담당교사를 부릅니다.

안전 · 사고가 나기 전과 난 직후

응급처치를 아는 것보다 먼저, 위험을 멈추고 담당교사와 119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방의 다섯 기준

시야

아이를 담당교사의 시야·목소리 범위 밖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인원

공간을 옮기기 전·후 아이 수를 담당교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환경

문 끼임, 작은 물건, 뜨거운 것, 젖은 바닥을 보면 즉시 차단·보고합니다.

일상

수유·식사·기저귀·낮잠은 개인별 안내를 따르고 혼자 맡지 않습니다.

인계

보호자처럼 보여도 임의로 아이를 보내지 않고 담당교사에게 연결합니다.

2 사고 직후: 멈춤 → 알림 → 보호

1. 멈춤

활동을 멈추고 주변의 두 번째 위험을 치웁니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2. 알림

담당교사·책임자를 즉시 부릅니다. 긴급하면 119에 위치와 상태를 알립니다.

3. 보호

다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119·책임자의 지시를 따릅니다.

3 119에 말할 내용

① 정확한 위치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③ 아이의 나이 ④ 의식·호흡 여부와 보이는 상태 ⑤ 신고자 이름·연락처

전화를 먼저 끊지 말고 의료지도를 받습니다. 보호자 연락과 사고기록은 책임자가 정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 임의로 약·음식·음료 주기 · 머리·목 손상이 의심되는 아이를 일으키기 · 사고를 숨기거나 대신 설명 만들기 · 사진부터 찍기 · 개인 판단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존중하는 상호작용 · 개인정보 보호

아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당교사와 함께 아이의 안전·선택·존엄을 지키는 어른으로 참여합니다.

1 아이와 말하고 기다리는 법

눈높이와 이름

가까이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가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행동을 말로

“빨간 블록을 세 번 올렸구나”처럼 보이는 행동을 그대로 말합니다.

선택을 작게

“여기에서 볼까, 저기에서 볼까?”처럼 가능한 두 선택을 제안합니다.

감정과 경계

“속상했구나. 때리는 건 막을게”처럼 감정은 인정하고 위험 행동은 차분히 막습니다.

2 금지사항

- ☐ 고향·협박·비꼼·창피 주기·비교·벌세우기·무시하기
- ☐ 억지로 먹이기·재우기·화장실 가게 하기·신체 접촉 강요하기
- ☐ 아이를 혼자 두기·문을 잠그기·몸을 거칠게 잡거나 끌기
- ☐ 보호자에게 다른 아이의 행동·가정사·건강 정보를 말하기

3 사진·이름·이야기는 기관의 정보입니다

촬영 전 기관의 촬영 목적·동의 범위·사용 기기를 확인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촬영 중 승인된 아이만 담고 이름표·출석표·주소·연락처·건강정보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촬영 후 기관이 정한 저장 위치에 옮기고 개인 기기·메신저·개인 클라우드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공유 전 담당교사가 동의 범위와 함께 나온 다른 아이·성인·문서 노출을 다시 확인합니다.

학대 의심·폭력 목격 · 아이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책임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긴급한 위험은 112에 신고합니다. 아이를 반복 질문하거나 비밀을 약속하지 말고, 들은 말과 본 사실을 그대로 남깁니다.

상황별 대응 · 확인과 서명

정답을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누구를 부를지, 기관의 실제 절차를 담당교사와 채워 보세요.

1 다섯 장면 빠른 대응

1. 아이가 화장실에 같이 가 달라고 해요.

담당교사를 부르고 기관의 사생활 보호·동행 원칙을 따릅니다. 임의로 단둘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2. 보호자가 다른 아이 이야기를 물어요.

“담당교사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평가·추측·개인정보를 전하지 않습니다.

3. 아이가 다치거나 갑자기 쳐져요.

활동을 멈추고 담당교사·책임자를 즉시 부릅니다. 긴급하면 119 지시에 따릅니다.

4.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해요.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않고, 기관 기기·동의 범위·게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5. 아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며 위협을 말해요.

차분히 듣되 비밀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 즉시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2 기관 연락망

책임자 _____ 담당교사 _____

내선·연락 _____ 대피 집결지 _____

확인 서약 · 본인은 역할 경계, 안전·사고 대응, 존중하는 상호작용, 금지사항, 개인정보 보호, 의심 상황 보고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기관의 세부 규정을 따르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멈춘 뒤 담당교사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참여자 서명 _____ 안내자 서명 _____

날짜 ____년 ____월 ____일